

국립전주박물관, 2017 주요업무 계획 발표

도내 역사 연구 · 소장품 관리 체계화

국립전주박물관이 2017년에는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연구하고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김승희 박물관 관장은 5일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2017 주요업무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전북의 '역사와 문화' 조사·연구 및 소장품의 체계적 관리,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 및 테마전 개최, ▲지역 특성에 맞는 어린이박물관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민과 소통하는 박물관 등이다.

박물관은 전북의 역사와 문화 조사·연구 및 소장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후백제 역사 복원을 위한 기반 연구, 선사·고대의 제사 연구, 전북의 도자 연구, 전북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공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후백제 도성벽(전주지 노

진안 도토리 청자가마 추가 발굴조사 추진
수장대 교체도 진행

다양하게 정한 주제의 특별전 · 테마전 개최

지역 특성에 맞는 어린이박물관 등 운영

송동 일원)을 시굴조사 하고 이에 따른 연구 성과를 출판하기로 했으며 진안 도토리 청자가마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 및 보고서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장고 개·보수 및 수장대를 확대를 위한 수장대 교체도 진행하여 박물관 소장품의 보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물관은 역사 문화를 한 자리에서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 및 테마전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역사성과 예술성 소개하는 '조선왕릉 특별전(2.21~4.9)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수장 발굴성과를 소개하는 '전북의 바다 속 문화재 테마전'(5월 예정), 한지를 기반으로 하는 서화·고문서·부채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한지의 현재와 미래 조명해 보는 '중국 소주박물관 교류전-전주 한

지'(9.20~11.26), 2017년 세계사에전 북비엔날레 연계 특별전으로 열릴 '중국 소주박물관 소장품 특별전'(10.21~12.3), '철, 역사를 움직인다'(12월 중) 전을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역 밀착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축제행사를 마련한다.

박물관은 제18기 박물관대학, 특별전과 연계한 '박물관 문화유산 답사' 교육, 학교와 연계한 진로탐색 교육 '청소년 큐레이터' 운영,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설·대보름맞이 '작은문화축전'(1.27~2.11), 어린이날 문화축제(5.5), 제27회 어린이 문화재그리기대회, 한가위 민속놀이마당(10.3~10.8) 등을 개최하며 월 1회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연으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해은 기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

조현동 작가의 작품들은 꽃을 비롯한 자연의 물상을 소재로 하고 화려한 색채들로 제작하여 일반적인 화조화 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화려하게만 보이는 작품의 내면에는 또 다른 동양의 정신성이 내재되어 있다.

작가는 이러한 정신이 발현된 그림들을 42번째 개인전 '유연'에서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화려한 색채가 주는 단편적인 화려함보다는 깊고 그윽한 우미한 아름다움을 작가만의 색채와 기법으로 담아낸다. 동양화 채색기법으로 천에 아크릴 과슈, 자개, 금박, 은박 등 혼합재료로 그린 작업들을 내놨다.

순환하는 자연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작품(자연-순환-이야기), 가시적인 자연의 경계와 비가시적인 시간과 공간, 의식 등의 경계를 주제로 한 작품(자연-경계),

▶ **교통아트미술관서 조현동 개인전 '유연'**

화려한 색채가 주는 단편적 화려함보다 깊고 그윽한 아름다운 작가만의 색채로 담아내

자연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주제로 하고 화병과 새, 나비를 소재로 한 정물화형식의 (공감-채집) 등 세 가지 주제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작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상들은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다가 아닌 그 깊은 내면에는 단편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한다.

작가는 원광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 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전라북도미술대전 대상(전북예술회관), 폭우회공모전 우수상(서울시립미술관), 한국특장미술대전 우수상(광주시립미술대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원목회, 원미회, 일레브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남원 여성문화센터, 국립군산대학교 출강 및 제이슨 조 조형예술연구소 대표로 활동 중이다.

전시는 오는 15일까지 교통아트미술관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올 개최 전주국제영화제 스태프 공개 채용

(재)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충직)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리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를 함께 만들어 갈 3차 스태프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이벤트팀 3명, 프로그램팀 2명, 운영관리팀 3명, 관객서비스팀 6명, 총무지원팀 2명으로 총 5개 팀에서 16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지원 분야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전주지역 거주 또는 근무기간 중 전주에 거주 가능한 자이다. 모집분야 별로 외국어 능력 및 운전 능력 등이 필요하며, 영화제 유경험자 및 영화관련 업무 경력자는 우대한다.

접수방법은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www.jiff.or.kr)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자기소개서와 함께 이메일 jiff_recruit@jiff.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방문 및 우편 접수도 불가하다.

접수 마감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며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1월 13일 개별 연락으로 1차 합격자를 통보한 후,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1월 20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문의 전주국제영화제 행정팀 063-288-5433. /정해은 기자



신영복 전 교수 1주기 다시 찾아온 '그의 말과 글'

경제학자 겸 작가인 고 신영복(1941~2016) 전 성공회대 석좌교수 1주기(1월15일)를 앞두고 그가 남긴 글과 말이 찾아왔다.

출판사 돌베개는 신 전 교수가 신문과 잡지 등에 발표한 글과 강연록 중에서 생전에 책으로 묶이지 않은 글들을 모은 유고집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신영복 유고'를 펴냈다.

동시에 신 전 교수가 20년 20일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이듬해인 1989년부터 타계하기 직전인 2015년까지 나눈 대담 중 선생의 사상적 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담 10편을 가린 '순잡고 더불어-신영복과의 대화'도 출간했다.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수록 작품 중 '가을'부터 '성(塍)의 개널'까지 7편의 글은 신 전 교수가 1988년 구속되기 전에 쓴 글이다. '20대 청년 시절 신영복'의 자취를 보여주는 글로, 이 책을 엮으며 유족으로부터 입수해 처음 공개한다.

젊은 날의 습작이지만, 20년 뒤 만나게 될 신영복 서간문학의 맹아(萌芽)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 아닐 수 없다고 돌베개는 설명했다.

제목이 따로 없어 편집자가 제목을 임의로 붙인 글이 있고, 또 앞부분이 일실돼 완성된 형태가 아닌 글도 있다.

'순잡고 더불어'에는 25년 동안 김정수, 정운영, 홍윤기, 김명인, 이대근, 탁현민, 지강유철, 정재승, 이진순, 김영철 등 가톨릭 사제, 경제학자, 철학자, 문화평론가, 언론인, 문화기획자, 과학자 등의 인터뷰어들과 나눈 이야기들이 연대순으로 실려 있다.

신 전 교수의 정제된 텍스트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의 숨겨 왔던, 혹은 숨어 있던 면모들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언론인이자 경제학자인 정운영(1944~2005)과의 1992년 대담에서는 본인 스스로 거의 밝히지 않았던 유년기와 성장기, 또 대학 재학 시절과 통학당 연루 시기의 깨알 같은 전기적 사실들을 밝힌다. 두 사람이 대학 시절 선후배 사이, 스스럼없고 편안한 분위기의 대담이 가능했다. /뉴시스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1월 6일)

<p>▶ 쥐띠 48년생: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운. 60년생: 구설수 시비수가 따르니 언행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2년생: 작은 일은 가능하나 큰일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84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p>	<p>▶ 소띠 49년생: 매사 큰 움직임은 삼가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61년생: 분주하기는 하나 분주한 만큼 이득을 얻기는 어려운 운이다. 73년생: 혼자서는 불가능하나 힘을 합치면 가능한 일이다. 85년생: 뜻밖의 귀인이 도움을 주는 운.</p>	<p>▶ 호랑이띠 50년생: 외부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나 앞으로 나아가지 말고 내실을 다져야 하는 운이다. 62년생: 가뭄에 시달리다 단비를 만난 격. 74년생: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86년생: 욕심을 부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운이니 주의하라.</p>	<p>▶ 토끼띠 51년생: 힘든 상황에 놓였던 사람은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좋았던 사람은 어려움에서 대비하라. 63년생: 도처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된다. 75년생: 모질고 귀를 힘들게 하는 소리가 도움이 되는 운이다. 87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니 뒤로 물러서서 내실을 다져라.</p>
<p>▶ 용띠 52년생: 동기간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쉽게 이를 수 있다. 64년생: 남자는 여성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76년생: 들을 얻었으면 하나를 보내야 하는 운이니 짐작은 금물. 88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발생한다.</p>	<p>▶ 뱀띠 53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운이니 조심하라. 65년생: 예상보다 상황이 좋게 돌아갈 수 있다. 77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몸의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라. 89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안하게 지니는 운이다.</p>	<p>▶ 말띠 54년생: 주변에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생기는 운이다. 66년생: 지나치게 나서면 구설수가 따르게 되니 상황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다. 78년생: 주변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운이다. 90년생: 억의 없이 행동한 일에 관련한 상황이 발생하는 운이다.</p>	<p>▶ 양띠 55년생: 내부에서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겉으로 유지만 하고 있을 뿐이다. 67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는 운. 79년생: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91년생: 변동하면 흥분하고 좋아지니 망설이지 마라.</p>
<p>▶ 원숭이띠 56년생: 사고수를 조심해야 하는 때. 68년생: 금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주의하라. 80년생: 구설수, 시비수가 따르니 언행에 삼가고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라. 92년생: 지나친 과단성은 주위 사람들의 문제를 아끼기니 조심하라.</p>	<p>▶ 닭띠 57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니 기다려라. 69년생: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운이다. 낙심은 금물. 81년생: 처음에는 어려우나 후반에는 잘 풀리는 운이다. 93년생: 천수신조가 있으니 매사에 순리대로 진행하면 편안해질 것이다.</p>	<p>▶ 개띠 46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다. 상황을 잘 살펴서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8년생: 이성과 상대하면 반목이 많아질 듯. 70년생: 시비가 따르니 불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뒤로 물러서라. 82년생: 좋지 않은 일이 몰려 다니는 운이다.</p>	<p>▶ 돼지띠 47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59년생: 움직이면 이득이 있고 머물면 손해가 따른다. 71년생: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일이 틀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83년생: 매사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후에 움직여야 한다.</p>